



# 2015-2021 이클레이 전략계획

지역 실천활동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 목차

1부. 2015-2021 이클레이 전략적 토대	4
2부. 2015-2021 실행 계획	7
A. 배경: 변화하는 환경	7
B. 변화에 대응하기-변화를 활용하기	9
I.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신속한 행동과 과감한 실행	9
II. 지방정부와 세계를 연계	10
III. 지역의 적극적 실천을 지원	10
IV.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진기지	10
C. 전 지구적 회원 조직, 이클레이	11
V. 전 세계 회원 도시의 결집력	11
VI. 이클레이 전 세계 사무소: 전략적 입지와 고도의 전문성	12
VII.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13
D. 이클레이의 파트너십과 대변활동	14
VIII. 지역 실천활동을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	14
IX. 이클레이 대변활동	16
E.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이클레이의 도시 의제	20
각 의제 실행을 위한 이클레이 전략	21
1. 지속가능한 도시	22
2.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	24
3. 생산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27
4. 재난과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30
5.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	32
6. 똑똑한 도시	34
7. 생태교통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36
8.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	38
9.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및 녹색 구매	40
10. 도시-지역 간 지속가능한 협력	42

## 이클레이 서울계획: 지역 실천활동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본 출판물 인용 시 다음과 같이 출처를 밝혀야 함:  
ICLEI Seoul Strategic Plan 2015-2021.

**저자:** Gino Van Begin, Monika Zimmermann  
**작성 참여:** 이클레이 각 지역 사무소, 이클레이 글로벌 코디네이터,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이클레이 세계이사회  
**편집인:** Michael Woodbridge  
**디자인:** Margaret Keener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e.V.**  
Kaiser-Friedrich-Str. 7  
53113 Bonn, Germany  
www.iclei.org · iclei@iclei.org

본 출판물의 판권은 이클레이에 있습니다.  
표지 사진 판권: 서울특별시

본 출판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클레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클레이는 본 출판물의 확산 및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통상적으로 비상업적 목적의 복제나 복사는 즉시 승인되며 비용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5-2021 이클레이 전략계획은 인터넷 ([www.iclei.org/seoul-strategic-plan](http://www.iclei.org/seoul-strategic-plan))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5년, 그리고...

25년이나 됐느냐고요? 아닙니다. 아직 2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클레이는 도시 지속가능성 사유에 있어 개척자이자 지도자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준비할 것입니다. 새 이슈가 떠오르면 누구보다도 먼저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이클레이는 과감하고 야심찬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정부의 행로가 어떤 여건 하에 놓여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새로운 접근방식과 전략, 정책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그들이 직면해 있는 도전과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는 도시화 확대 현실에 맞서고, 경제적·인구통계학적 추세 변화에 적응하며, 기후변화 및 기타 도시문제가 초래하는 영향에 대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갈 것입니다. 이클레이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해법을 위한 이클레이의 노력을 잘 반영하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개발 및 도시계획 체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회원 도시들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변함없는 이클레이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지도자, 시민사회, 다양한 이해당사자, 파트너 등의 적극적인 참여, 혁신적인 기업, 그리고 개방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포용적인 시민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도시화는,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자로서의 지방정부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는 늘어나는 도시 인구를 위한 주택과 인프라를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들에 맞추어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이클레이 사무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 도시들을 대신하여 지역 리더와 실무자, 국제기구 파트너, 각국 정부와 초국가적 정부, 연구소와 학계, 민간 부문, 비정부기구, 미디어 등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은 지구촌의 실질적 진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를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그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2021 전략계획, 이클레이 서울계획은 2015년 4월 1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소집된, 이클레이의 1,000여 개 회원 도시들을 대표하는 이클레이 세계이사회 (ICLEI Council)에 의해 채택됐다.

이 계획은 이전 계획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2015-2021년을 위해 수립된 새 전략계획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계획은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의 공약이자 전 세계 17개 이클레이 사무소의 활동 기반을 이룬다. 이 문서는 회원 지방정부를 위한 각종 제안과 서비스를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며, 이클레이의 전략적 접근법과 우선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향후 지구촌에서의 이클레이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이클레이의 목표와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 2015-2021 이클레이 전략적 토대

이클레이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역동적인 국제기구이다. 오랜 역사를 지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창립 이후 지금까지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이클레이의 최우선 과제는 변함이 없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그것이다. 이클레이의 초기 캠페인 및 프로그램은 이 사명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는 쪽으로 확대돼 왔다.

## 이클레이 사명

이클레이는 지역 실천활동 축적을 통해 환경 중심의 지구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운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 입안, 2000년 갱신)

- **전 지구적 환경재 관리**, 기후, 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대기, 토지/토양, 식량, 해양생물과 해안 생태
- **정책 혁신**, 지방의제21/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로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통합적이며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리, 녹색경제, 안전, 사회적 발전
- **도시계획 및 관리**, 지속가능성 관리, 토지 이용과 개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회복력 관리, 자연, 사회, 경제 및 금융 자원 관리, 공공구매
- **사회기반시설 전환**, 이동수단, 건축물, 에너지, 물과 위생, 폐기물, 정보와 소통 (기술)



# 2015-2021 이클레이 전략적 토대

우리의 기본 전략은 확립된 이클레이의 가치와 목표, 운영 방식을 꾸준히 추구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입증된 성공 사례, 우수 실천사례를 확산한다.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방안을 제시한다.

## 회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이클레이는 다음 사항을 추진할 것이다.

- 네트워크와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 간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한다.
- 회원 간 교류를 위한 통로를 새로 마련한다.
- 지방정부의 이클레이 가입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 중국의 도시들에 이클레이의 프로그램과 행사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기존 및 신규 회원들이 이클레이에 대한 기대와 기여 사항을 문서화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 회원들의 업적과 성과를 심화 측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접근법을 마련한다.
-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WMCCC)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한 기구로 전환하여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약속과 정치적 지도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클레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지속가능한 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해갈 것이다. 우리는 '생태 도시', '녹색도시', '똑똑한 도시' 등의 구상을 구체적인 주제를 통해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포괄적 비전 하에 추진할 것이다. 이는 생태와 경제, 사회적 발전을 통합적이고 횡단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 **정책 통합**: 회원들과의 협력 영역을 다양화시킬 것이다 (20쪽 '이클레이의 도시 의제'참고). 이 때 통합적인 정책 및 관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부문에 갇힌 사고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새로운 주제** : 이클레이의 비전에 맞는 주제나 접근법을 새롭게 수용해나갈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생산적인 도시**: 도시가 착취적 체계가 아닌 생산적인 체계로 바뀔 수 있음을 입증한다.
  - » **도시 식량**: 도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지역 실천활동과 협력에 착수한다.
  - » **공유도시**: 시민들과 지역 기업이 재화를 공유 및 대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틀을 회원 도시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 » **똑똑한 도시**: 사람 중심의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물리적, 사회적 체계, 거버넌스 구조 등을 최적화하도록 회원들을 지원한다.
  - » **도시가 직면하는 위험**: 도시가 맞닥뜨릴 수 있는 자연적, 산업적, 사회적 및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평가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지원한다.

## 이클레이 활동 전개 전략

- **이클레이의 핵심 전문영역:** 특히 저탄소 발전, 회복력 있는 도시, 자원 효율성,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리 분야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유지 및 강화
- **선도 도시와 주류화:** 회원 지원 강화를 통해 선도 도시 수 확대, 선도 도시 협력 역량 강화, 열성 회원의 참여 및 독려를 위한 방안 확대
- **주제별 네트워크 활동:** 100%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투자 회수, 도시농업, 똑똑한 도시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 간 실천 중심의 협력을 추진 및 확대
- **지역적 접근:** 전 지구적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정책도구 및 접근법을 지역의 문화와 요구에 맞게 조정
- **성과:** 표준 수립과 자료 수집에 대한 참여 등 지역적 성과를 추적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한 보고 툴을 확대 개발
- **전 지구적 보고체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과 목표, 실천활동과 성과를 보고하는 보고 체계인 카본 기후등록부(cCR)를 생물 다양성 등 타 분야로 확대
- **'지역 실천활동'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이 참여 주체들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연계 (Urban Nexus), 수직적 통합 & 다층적 거버넌스, 도시-지역 간 협력 등을 모든 분야에서 강조
- **공통의 목표-공동 행동:** 기존 파트너십과 공동 구상, 협력사업을 강화 및 확대하여 지식 기반과 개념 이해, 실행 등을 위한 이클레이 역량을 강화
-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역/도시 연맹:** 2016년의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위한 논의 등에서 일반 대중,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조.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행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는 그 과정을 선도하고 조율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재정 지원:** 이클레이 전체 의제에 걸쳐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 지원 모형 및 방안에 집중. 이는 공공 부문 행위주체의 역량 및 관련 도구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함

## 새 도시 의제

이클레이는 2016년 열리는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각국 중앙정부가 다음의 내용을 합의 도출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 »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새 도시 의제의 비전으로 의무적으로 채택
- » 법적 및 재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도시화 문제에 대응
- » 저탄소의, 회복력 있는, 생산적인,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그리고 인간적인 도시라는 개념을 기본 원리로 도입
- »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강화
- » 지방정부들에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

## 2015~2016년 이클레이 대변활동

- **글로벌 기후 정책:** 파리에서 열리는 2015 유엔 기후총회에서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조율. 100대 전환행동프로그램 (TAP) 발표. 지방정부 기후 파빌리온을 운영하여 상호 교류를 위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아울러, 각국 중앙정부가 야심찬 기후 목표를 합의해내고 더 강력한 지방 기후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임
- **지역적 행동-지구적 체제:** 2015년과 2016년에는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및 새 국제기후체제를 위한 계획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이러한 대변활동은 가시적인 지방행동 및 성과가 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파트너십:** 세계지방자체단체연합 (UCLG), 메트로폴리스, 씨포티 (C40), R20 기후행동지역 (R20)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지방정부네트워크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성과와 노력을 강화할 것임
-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 이행:**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를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도시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착수
-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2016년):** 지속가능한 도시화가 선도적인 비전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더 자세한 내용은 왼쪽 박스글 참고.

# 2015-2021 실행 계획

## A. 배경: 변화하는 환경

**인구 팽창**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인구는 분당 145명, 매월 635만 명 증가하여 전 세계 인구는 현재 70억 명에서 2050년에는 95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화** 역시 그만큼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도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매년 1.84% 늘어나고 있다. 2050년에는 도시 인구가 60억을 넘어 인류의 2/3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도시 성장은 상당 부분 인도와 중국에서 진행돼, 인도에서는 4억 4백만 명, 중국에서는 2억 9,100만 명이 도시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는 사람, 공간 및 경제 측면에서의 도시화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정이며, 관련 활동들이 상호 연계돼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도시기반시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며, 도시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앞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도시화 진전이 야기하는 도전과제 중 하나로 도시기반시설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팽창과 대도시화 추세**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 단위로서의 '도시'가 다른 형태로 바뀔지도 모른다. 많은 국가에서 '도농복합 지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도시'를 대체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도시화**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도시 전체를, 또는 마을 전체를 공적 기구가 아닌 민간 주체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적 생활양식** 및 인구 성장은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귀결된다. 급성장하는 개도국 및 선진 산업국들이 아프리카와 같이 역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지역의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원 수입 및 수출 지역 모두에서 (해당 지역) 지도자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출산율이 높고 기대수명이 낮은 농촌사회에서 저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후기산업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로 다수 지구촌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기대치가 변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병률 및 좌식 생활양식이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사회는 지역 사회 기반시설 및 거버넌스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역으로, 젊은이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일자리에 대한 이들의 수요 때문에 타 연령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및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 사회로의 점진적 변화도 내포한다. 노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특히 도시 지역은 사회정책 및 사회기반시설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 국가를 포함, 지구촌 저발전 국가와 산업국가들 간 **지리경제학적 및 지정학적 상호작용**과 발전 동학으로 인해 전 지구적 및 지역적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법이 다양해졌다. 전 세계 개도국들은 전 지구적 환경 변화라는 도전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중앙집중 및 지역화**: 권력과 사회기반시설의 집중이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하며 풀뿌리 행동 (에너지 생산 포함)을 조직할 가능성 역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

**지구 환경의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구촌 생물종의 손실은 자연멸종률의 1,000에서 10,000배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는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억 8,000만 명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 수인성 질병으로 매일 4,100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현재 400ppm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80만 년 만에 최고치이다. 대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이 대양에 흡수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산성화는 수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도시 지역에 예측불가능한 압박이 되고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오늘날 400ppm 이상으로 증가해 80만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가 인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오직 인간만이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기후 난민**은 국가와 대륙 내에서, 그리고 국가와 대륙 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특정 지역은 인구 성장 및 도시화가 촉진되는 한편, 동시에 다른 지역들에서는 인구가 감소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가 통째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낮은 장소에서 급속도로 도시가 조성되는 것이 미래의 우리 도시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녹지 및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변화 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관이 사라지거나 개발되면 해당 지역 식생의 탄소 고정 능력이 손실된다. 생물다양성과 녹지는 기후변화 적응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정 온도 유지(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 감축), 극단적 기상이변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인류 문명이 남긴 **생태발자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2014년, 인간은 자연이 2014년 한 해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생태적 용량의 50% 이상을 소비했다. 천연 자원의 사용 및 폐기물 양산이 지금의 비율로 계속된다면 2030년 인류는 지구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러한 과소비가 바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흐름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역량은 축소**되고 있다. 동시에 전 지구적 차원의 다자간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상황은 대단히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전통적 '성장' 모델은 한정된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 위험에 처한 도시-위험 요인으로서의 도시

도시는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곳으로, 대개는 인구 밀도가 높다. 전 세계에서 도시는 공식 및 비공식 부문 모두에서 경제, 교육, 혁신, 생산 및 소비의 중심이다.

도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많은 도시들이 급속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전 지구적 시스템 변화가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해 수십 년 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부족 문제로 인해 도시는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2015 위험 보고서(Risk 2015, 10판)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전 지구적 위험 요인 대부분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그 성격이 바뀔 수 있다. 발발 가능성 및 그 효과에 도시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는 수많은 위험 요인이 융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각 위험은 연쇄반응에 특히 취약해지고, 전 지구적 위험 요인 간 상호연관성이 증폭된다. 각 위험 요인이 도시 차원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연관성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은 회복력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회기반시설, 보건, 기후변화 및 사회 불안정을 도시가 직면해 있는 4대 도전과제”로 꼽고 있다.

### 위험에 처한 도시

도시 실업의 증가, 과도한 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회 지원 및 교육 체계, 도심 쇠퇴 및 범죄 증가, 불평등과 강력 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 불안, 테러,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조적 금융 위기, 자연재해, 산업재해, 기후변화, 에너지 불안, 식량 불안, 불안정한 물 공급, 전염병,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의 감소 및 손실, 자연과 사회 간의 점진적인 단절 등 이들 위험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 위험 요인으로서의 도시

도시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동시에 도시 자체가 위험 요소일 수 있다. 도시화와 도시 개발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을 때 사회에, 국가에, 나아가 전 세계 환경과 경제에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 B. 변화에 대응하기-변화를 활용하기

### I.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신속한 행동과 과감한 실행

지구는 '도시행성(Urban planet)'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 지구적 생태계 서비스의 악화, 과도한 인간 활동 등의 추세 속에서 드러나는 급속한 세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노력이 대규모로 **확대**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단위의 노력은 도시화 확산, 인구구조 변화, 빈부격차 심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발전 모델 등 관련된 과제들과 연계돼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관행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평균 수준의 모범사례'를 뜻하는 것이라면 '최첨단'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식의 발전 모델을 지향하는 대신 기술, 조직, 재정 및 사회적 측면에서 새로운 해법을 향해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신속히 행동하고, 혁신적이고 규모 있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지역 실천활동은 '시범'사업과 '우수 사례'의 소규모 복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규모 있는 실천을 추동하고 독려하며, 지금의 자원 소비 및 오염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 모델을 탈피하게 할 체계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와 같은 **지역 주도의 과감한 실천**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와 연계된, 재정과 세입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의 의사결정 및 계획수립을 통해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각자의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전환해 내는 것이다.

- 탄소 및 폐기물 순 배출량 제로
-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으로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 자원 낭용 없이 번영하는 경제 중심지
- 자원 순환 구조의 자립적 도시
- 지속가능한 수준의 인간 활동을 토대로 한 번영하는 도시
-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접근권을 부여하는 도시로서, 개인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우리의 풍부한 자연 세계가 인류를 위한 필수 기반이자 생태자원의 공급자로서 이해되고 존중받는 도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는 서로 배우며 실천하고, 미래를 앞당기며, 서로를 이끌고 독려하는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



## II. 지방정부와 세계를 연계

이클레이의 회원 지방정부, 거버넌스 기구, 각 사무소와 직원들의 활동 지침이 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이클레이의 **비전**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란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생산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교통을 추구하는 똑똑한 도시이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및 공공구매를 핵심 수단으로 하여 건강하고 행복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협의체**로서 시, 군, 광역시, 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는 저탄소의 회복력 있는, 기후 적응을 위한,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길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전 지구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지역 실천활동 촉적을 통해 환경 중심의 지구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운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클레이의 **임무**는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회원 구성원을 형성하고, 국제적 차원은 물론 대륙과 국가, 광역지방정부 수준의 지방정부 협의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클레이는 협의체로서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우리의 업무를 추동하는 것은 '**지역 실천활동**'이다. 우리는 실행을 목표로 회원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지도자들을 전략적 파트너들과 연결해준다. 혁신적인 지도자, 과학자 및 연구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한다. 미래지향적인 지방정부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과정들에서 지방정부의 각종 구상을 소개한다.

## III. 지역의 적극적 실천을 지원

이클레이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사업과 프로그램, 캠페인,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연맹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회원 지방정부들이 전 지구적 규모로 벌이는 대규모 **운동**이다. 실천과 이행을 겨냥한 회원 도시들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클레이는 공약과 선언, 성과 툴, 프로그램, 국제교류, 특정 주제의 네트워크, 우수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전략적 동맹과 센터 등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관련 표준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이클레이의 운동을 통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해법을 실행하기 위한 회원 역량을 지원하고, 재원을 발굴하며, 실천을 위한 여건을 개선해가고 있다.



## IV.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진기지

이클레이는 효과적인 해법을 파악해 시행할 수 있도록 회원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앞선 **지식**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지도자와 정책 기획자, 정책을 실행하는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과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센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방법론과 기술을 제시한다. 실천활동에 대한 연구와 지식 공유 통로들을 통해 도시 발전 이론을 탐구하고 고찰한다.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시험하며 공유한다.

도시 혁신을 확대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한다. 혁신적인 기법과 도구 개발을 위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클레이는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신세대 비영리기구로서, 우리의 활동 범위와 파급력은 전 지구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지역의 맥락에 맞는 지역적인 실천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 C. 전 지구적 회원 조직, 이클레이

## V. 전 세계 회원 도시의 결집력

이클레이는 전 지구적 회원 조직이다. 지역별, 주제별 지식 공유 플랫폼, 주제별 글로벌 센터,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역량을 결합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전 지구적 네트워크로서 유엔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 기구들에서 지방정부 그룹을 위해 적극적인 대변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기구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진입지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비회원 지방정부와의 접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클레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또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15-2021 활동 계획

- 회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한다.
  - » 회원 지방정부 25% 이상을 전 지구적 또는 대륙별 프로젝트나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한다.
  - » 특히 신규 회원을 중심으로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웹비나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야심찬 목표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 세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이클레이 회원 조직을 강화한다.
- '도시-지역 (region) 간 지속가능한 협력'(9번 의제)을 이클레이 의제로 추가함으로써 **지역들이** 기존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이클레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우리와 협력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 신규 및 기존 회원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회원으로서의 각자 기대사항 및 이클레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문서화하도록 한다.
- **저발전 국가** 소재 회원 지방정부들의 참여 및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중국의 도시들이** 이클레이의 프로그램과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일반/ 우수 회원 구분, 글로벌/대륙별 회원 관리 등 **회원 제도**를 다양화하고, 회비 구조 및 참여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 회원 지방정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한다.
  - » 회원 도시 간 대륙별, 국가별 및 주제별 네트워크
  - » 성격이나 도전과제가 유사한 도시들 간 주제별 네트워크 (예: 해안도시 네트워크)
  - » 유사한 도전과제와 활동내용, 혹은 유사한 성과목표를 가진 도시들을 위한 워크넷(WorkNet)
  - » 웹과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류 시스템
  - » 프로젝트 및 특정 주제 영역에서 함께 활동해 온 기존 도시 네트워크
  - »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회원 그룹을 위한 편의 제공
- 회원 도시들의 실적과 성과를 측정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과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지역 실천활동**을 널리 소개하고 공통된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 회원들이 서로 간에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위한 본격적인 도시 소개 플랫폼을 도입
  - » 회원 연락처와 상세한 회원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강력한 회원 관리 플랫폼을 새롭게 마련. 이는 회원들이 각자의 성과와 요구사항,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와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정보를 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 카본 기후등록부 (cCR) 모델을 이용하여 도시 생물다양성, 회복력, 물, 교통 등을 위한 정책을 문서화하고 보고하는 유사 시스템을 부문별로 구축
  - » 회원들의 정책 수행 현황을 분석하고 우수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고 및 공유

- 이클레이 **거버넌스** 및 관리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음의 목표를 달성한다.
  - » 회원 도시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 유지
  - » 권역별 및 세계 집행위원회 선출 집행위원들의 효과적인 참여 보장
  - » 세계 집행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직능 대표들을 통해 이클레이의 주제별 지도력 및 대표성 강화
  - » 주제별 위원회나 대책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주제별 구상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
- **기후변화세계시장위원회** (World Mayors Council on Climate Change, WMCCC)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체가 되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변모시켜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정치적 지도력을 대표하는 조직이 되도록 한다.
- 지역의 차세대 정치인과 신임 시장, 지역 여성 지도자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클레이 **미래도시지도자** (Future City Leaders) 구상과 같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한다.

## VI. 이클레이 전 세계 사무소: 전략적 입지와 고도의 전문성

### 이클레이 사무소 (2015년 4월 기준)

#### 세계본부:

독일 본

#### 지역사무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동아시아 (대한민국 서울)

유럽 (독일 프라이부르크)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

중남미 (멕시코 멕시코시티)

오세아니아 (호주 멜버른)

남아시아 (인도 델리)

동남아시아 (필리핀 마닐라)

#### 국가사무소:

캐나다 (토론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도쿄)

대한민국 (수원)

미국 (오�클랜드)

#### 기타사무소:

대만 카오슝 교육훈련센터

벨기에 브뤼셀 주재 EU 연락사무소 (유럽사무국)

인도 하이데라바드 소재 남부사무소 (남아시아 사무국)

이클레이는 세계본부와, 대륙별로 전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 사무국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사무소, 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사무소, 주제별 센터 등을 가지고 있다.

이클레이는 세계 이클레이 헌장의 사명·임무·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클레이의 각 사무소는 관리에 있어, 그리고 법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클레이 사무소는 모두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 각 사무소는 여러 측면을 아우르고 있으며, 회원 지방정부들에 기업가정신, 창의성,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 혁신, 연구, 프로젝트 실행 역량 등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클레이 세계본부, 지역사무국 및 국가사무소는 제휴 협약을 통해 서로 연계돼 있다. 약 30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이클레이 전략계획 (ICLEI Strategic Plan)의 이행을 목표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2015-2021 활동 계획

- 기존 사무소를 강화하고,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신규 사무소를 개설한다.
- 국가별, 지역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사무소를 개설하고 회원 도시가 유치하도록 한다.
- 중국 내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한다.
- 기존의 주제별 센터를 확대 및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주제별 센터를 추가 설립한다.
- 글로벌 프로그램 및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직원 교류 프로그램, 회원 도시 대표들을 위한 훈련과정 등을 통해 이클레이 사무소 간 협력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간다.
- 협력적 자원 조성, 회비 기반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클레이의 재정적 기반 및 건전성을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한다.



## Ⅶ.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이클레이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다. 우리의 주요 강점은 회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격려이며, 동시에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 실천활동 및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각종 사업과 행사, 출판물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식을 제공한다.

이클레이는 회원은 물론 파트너 기관, 전문가, 그 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교류 및 상호 학습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실천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인적 관계와 회원 도시 간 협력 및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015-2021 활동 계획

- 변화를 위해 **지역 리더 및 의사결정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을 위해서는 정책도구 및 경험 상호교환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 다양한 방법과 도구, 기술적 해법을 사용함으로써 도시들의 성과를 포착하고, 그 결과 도출된 정보를 다른 도시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체계적인 **지식 관리** 시스템을 더욱 더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 **지역 실천활동에 대한 정보**를 웹 기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세계적인 우수 사례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더 개선되도록 할 것이다.
- 파트너 기관들이 보유한 플랫폼 및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를 추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파트너 기관들이 축적한 지식을 활용하고, 또한 이클레이의 회원에 대한 서비스 및 지식의 폭을 강화할 것이다.
- 저탄소 발전을 필두로 몇몇 선별된 주제 분야에서 '**도시적 해법을 제공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연구,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출범시킬 것이다. 이에는 관련 상품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포함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 리더십**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변화, 좋은 거버넌스의 촉진, 동료 평가, 젠더 및 청년 리더십을 지원하고 개발하기 위한 사업 등을 위한 리더십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 지방정부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서와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상들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서로 다른 문화 간 협력**을 위한 모듈을 제공할 것이다.
- 최신 연구 성과를 회원은 물론 비회원 지방정부들에게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기존의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이클레이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더 확대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학계에 전달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지역 실천활동과 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최신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 정책 브리프, 사례연구 보고서, 글로벌 보고서 등의 **출판**을 확대할 것이다.

# D. 이클레이의 파트너십과 대변활동

## VIII. 지역 실천활동을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

이클레이는 리더들을 연결한다. 창의성과 혁신을 가져오는 파트너십과 관계, 시너지를 배양, 강화 및 수립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달성하고, 파트너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각종 자원을 회원 도시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지구, 대륙, 국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립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양해각서', 혹은 이와 유사한 규약의 형태로 공식화돼 있다. 어떤 것들은 행사, 사업, 공동 활동 등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통해 가시화돼 있다.

우리는 도시와 지방정부, 이들의 유엔 파트너, 각종 국제기구 및 재정기구를 서로 연결하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다.

### 2015-2021 활동 계획

- 전 지구적인, 그리고 대륙 차원의 **파트너십**을 새로 수립하고 활성화할 것이다. 이때, 이 전략계획에 나타나 있듯이 주제별, 전략별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도시와 지방정부, 이들의 **유엔** 파트너, 각종 국제기구 및 재정기구를 서로 연결하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다.
- 연구기관, 전문가 조직, 업계, 비정부기구, 미디어 등과의 **지식 중심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확대해갈 것이다.
-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적인, 저탄소의 회복력 있는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와 기업** 간 대화와 협력의 촉진자로서의 이클레이의 역할을 입증하기 위해, 행사 기반의 기존 대화 플랫폼을 활용하고 추가 발굴할 것이다
- 전 지구적인, 그리고 대륙 수준의 **금융기구**, 다자간 기구, 자선단체 등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 **국제 표준화 기구**들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갈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미래의 기준과 표준을 통한 성과 측정 체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클레이가 글로벌 활동을 위해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조직:** 프랑스어권 지방자치단체장 국제연합 (AIMF), 도시기후리더십그룹 (C40),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자치단체국제협의체 (CityNet), 세계대도시협의회 (Metropoli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nrg4SD), 기후행동지역 (R20),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중앙정부 기관:** 독일 연방 경제협력개발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MOPAS), 미국국제개발처 (USAID)

**유엔 기구 및 국제기구:** 유엔경제사회국 (UNDESA),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GBIF), 세계물사업자파트너십연맹 (GWOPA-UN HABITAT),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국제에너지기구 (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동유럽 및 중부유럽 지역환경센터, 세계도시캠페인운영위원회, 유엔지방정부자문위원회 (UNACLA),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 유엔생물다양성협약 (UN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NESCAP),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유엔환경계획 자원효율적 도시를 위한 국제이니셔티브 (UNEP GI-REC),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 (UNISDR)

**금융기구:**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아시아개발은행 (ADB), 아시아도시개발이니셔티브 (CDIA), 유럽개발은행이사회 (CEB), 유럽투자은행 (EIB), 지구환경기금 (GEF), 미주개발은행 (IADB), 국제녹색구매네트워크 (IGPN), 세계은행 (WB)

**연구기관, 전문가 집단, 교육기관:** 아프리카트레이닝및연구센터 (CAFRAD), 캐나다 밴쿠버 시몬프레이저대학 지속가능항공동체개발센터, 중국도시개발센터 (CCUD), 중국도시연구협회 (CSUS), 생태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Ecocity Builders), 지속가능성고등연구소 (IASS), 광저우도시혁신연구소 (GIUI),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IGES), 스톡홀름회복력센터, 세계은행연구소 (WBI)

**프로그램·기관·단체:** 수직농장협회 (Association of Vertical Farming), 격차줄이기 이니셔티브 (Bridging the Gap Initiative), 도시연맹 (Cities Alliance), 지구헌장 이니셔티브 (Earth Charter Initiative), 지진과 메가시티 이니셔티브 (EMI), 글로벌 에코포럼 (EFG), 국제100%재생에너지캠페인,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 바젤글로벌인프라 (GIB), 다보스글로벌리스크포럼 (GRF), 녹색자, 지속가능한도시들 (前 지속가능한도시들 국제센터, ICSC), 국제도시계획가협회 (ISOCARP),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ies),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파트너십 (REEEP), 록펠러 재단, 도시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국제자원센터 네트워크 (RUAF), 지속가능한 저탄소 교통 파트너십 (sLoCat), 이해관계자 포럼 (SF), 세계자연기금 스웨덴 (WWF Sweden), 기후그룹 (TCG), 세계도시데이터위원회 (WCCD), 세계자연기금 (WWF), 세계자원연구소 (WRI), 월드워치연구소 (Worldwatch Institute)

**기업계:** 도이치메세, 인도상공회의소 (KaDIN), 맥킨지, 시멘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BCSD), 세계경제포럼 (WEF)

## IX. 이클레이 대변활동

실천 중심의 대변활동을 통해 이클레이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여기에서 지방정부는 정부 이해당사자(governmental stakeholders)로 인정, 참여 및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에 활발히 기여해오고 있다.

이클레이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관련 이행 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 대륙 및 국가 단위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도시 및 지방정부의 글로벌 진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중앙정부와 차별되는 다양한 차원의 정부들이 유엔과 그 외 각종 다자간 기구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더 잘 대표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차원의 활동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를 무대로 한 이클레이의 대변활동은 다음 네 개의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 1. 유엔총회 주도 과정:**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승인 하에 지방정부 그룹 (LGMA) 조직 파트너 자격으로 이클레이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및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제협상 회의, 정부 간 회의 준비과정 및 유엔 지역 회의들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엔사무총장 특별 구상 및 유엔총회 의장 회의들에도 참여하고 있다.
- 2. 유엔기구 및 정부 간 조직:** 다양한 종류의 유엔 특별 기구 및 프로그램이 유엔총회 아래 작동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공식 참관인 자격으로, 그리고 특별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이러한 과정들에 참여하고 있다. 이클레이와 협력 관계에 있는 주요 기관들에는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 (ISDR), 세계은행 (W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제에너지기구 (IEA), 국제표준화기구 (ISO),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등이 있다.
- 3. 다자간 환경 협약:** 1992년 리우 정상회의 결과 리우 3대 협약 (기후: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 사막화방지협약)이 도출됐다. 이클레이는 공식 참관 기관, 이행 파트너 및 지방정부 그룹 협력창구 (focal point) 자격으로 이들 협약의 이행 및 진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클레이는 지속가능성과 관련 있는 다른 협약들에서도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 4. 지방정부 국제 대변활동:** 개별적 참여 외에도 이클레이는, 전 지구적 프로세스에 대한 더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방정부 네트워크, 기타 파트너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기후, 생물다양성 및 포스트-2015 발전 의제에 집중돼 있다.



## 이클레이의 대변활동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 전 지구적 회의 참가를 위해 지방정부 대표 및 고위급 관리로 이루어진 대표단 **조직**
- » 서면 제출, 입장문서, 직접 개입, 부대행사 및 지방정부 정상회의 조직 등을 통해 협상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내용** 제공
- » '도시의 친구들 (Friends of Cities)' 과 같은 비공식 집단을 통해 중앙정부 협상단과의 활발한 **대화** 조직
- »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타 지방정부 네트워크, 그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및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구체적인 연맹 관계를 체결
- » 이러한 노력들에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공히 회원 및 비회원 지방정부 참여시키기

## 2015-2021 활동 계획

- 다른 지방정부 연합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대변활동을,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전개하고 확대할 것이다.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우리의 대변활동을 최적화할 것이다.
- 수요 중심의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고 지원하며, 기존 자원에서의 접근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 추가 자원을 마련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할 것이다.

### 유엔총회 주도 과정 관련:

- 지방정부 그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고위급정치포럼 (HPF), 유엔환경총회 (UN Environment Assembly) 등 모든 유엔 프로세스에서 **지방정부**가 정부 이해당사자로 적절히 대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리우+20 결과문서 42문단이 나타내고 있는 비전에 따라 전 지구적 수준, 그리고 대륙 수준의 협상에 참여할 것이다. 관련 유엔 기구를 유치하고 있는 회원 도시들과의 파트너십 또한 강화해나갈 것이다.
- 2015년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인 **포스트-2015 발전 의제** 협상에서, 그리고 2016년 10월 키토에서 개최 예정인 **3차 인간정주회의**와 연계하여, 도시와 인간 정주공간에 대한 독자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 활발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를 아우르면서 포용적인, 참여적이고 야심찬, 그리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도시 차원의 정책들이, 21세기 도시화된 세상 속에서 **전 지구적** 지속가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도전과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해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의 기술적, 제도적 및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 강화를 통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 유엔사무총장 주최 2014 기후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갈 것이다. **시장협약, 광역지방정부협약**, 그 외 7개의 관련 구상이 이에 해당하며, 데이터 혁명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노력을 연계할 활발한 대화 창구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 유엔기구 및 정부 간 조직 관련:

- **유엔환경계획 (UNEP):** 양해각서를 갱신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생태계/지역사회 기반의 적응,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원 효율성, 지구환경전망 (Global Environmental Outlook) 보고서, 유엔환경계획 라이브 데이터 포털, 유엔환경총회의 지방정부 리더들의 적극적 참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구체적인 결과물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 **유엔인간정주회의 (UN-Habitat):**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의 협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엔 시스템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로써 이클레이를 위한 각종 자원과 기회가 새롭게 열릴 것이다. 이를 통해 이클레이는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이후 수립될 유엔인간정주회의의 새로운 제도 구조를 기반으로 회원 도시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배출 도시 발전 전략 (Urban-LEDS)과 같은 프로젝트 차원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확대하며, 유엔지방정부자문위원회 (UNACLA)를 유엔 시스템 안에서 더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플랫폼/프로세스/제도로 새롭게 구성하여 리우+20 결과문서의 42문단 내용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 (UN ISDR):** 2015년 3월 센다이에서 열린 재해경감 3차 세계총회 (3rd World Congress on Disaster Risk Reduction) 결과물-이로써 효고 행동 체제 (Hygo Framework of Action) 2단계가 시작된다-을 토대로,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 더반 적응헌장의 10개 필수사항, 그 외 관련 구상들과의 효과적인 조율을 통한 재해 경감 및 관리, 그리고 기후적응이라는 측면을 특히 고려하는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의 시너지 효과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를 효고 행동 체제 2단계 계획의 지역 차원에서의 이행을 추적관찰하고 검토하는 연례 회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기타 기구:** 지구환경기금 (GEF)의 '지속가능한 도시 통합 행동 프로그램'과 협력한다. 국제 표준화기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TS268) 및 온실가스 관리 (TS207) 작업에 대한 참여를 강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에너지기구 (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세계은행 (WB), BRICS 그룹의 새 재정기구(안) 등과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거나 개선한다.

### 다자간 환경 협약 관련:

- **기후/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지방정부 10개년 전환행동프로그램(TAP)을 통해 국가들로 이루어진 전 지구적 기후체제의 활동에 기여한다.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 그리고 나즈카(NAZCA) 플랫폼 및 기타 관련 구상들과 연계돼 작동 중인, 지방정부의 기후 행동에 대한 1차 정보원 카본 기후등록부 (cCR)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안팎에서 10개년 전환행동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생물다양성/유엔생물다양성협약 (CBD):** 가능한 한 직원 파견을 유지하는 등 양해각서 이행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또한 2020년 나고야 10개년 계획의 종결 시점까지 확보된 자원을 토대로 이클레이 및 회원 도시들과의 전략적 이행 파트너십이 창출되도록 한다.
- **사막화/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가뭄, 생물다양성, 생태계/지역사회 기반의 적응, 식량안보, 도시-지역 범위의 식량 및 개발 정책, 토지 상실로 인한 지역사회 소거 등의 맥락 안에서 이클레이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개발한다.
- **기타:** 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그 외 다자간 환경 협약에의 이클레이의 참여를 고려하되,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고, 이 때 이클레이 도시 의제를 통해 이클레이의 활동에 뚜렷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지방정부 국제 대변활동 관련:

- **지방정부 기후로드맵과 시장협약:** 로드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시장협약과 기후 대변활동 업무 간 시너지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시장협약의 중심 등록부로 카본 기후등록부를 자리매김하게 하고, 세계 제일의 지방정부 기후 보고 플랫폼으로서의 현재의 지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로드맵 전략을 2016년에 수정할 것이다. 전환행동프로그램의 이행을 강화할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와의 협력을 통해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의 채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변활동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3차 유엔 인간정주회의를 겨냥한, 포스트-2015 발전 의제를 위한 글로벌 지방정부 대책반:** 이 과정과 2016년 10월에 개최되는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의 결과물 도출 과정에서 이클레이와 UCLG가 공동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유엔 새 발전 의제 내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커뮤니티스 연맹:**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의 시험대 역할을 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핵심 파트너로서의 이클레이의 지도력을 확대하며,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변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로드맵:** 이 개념을 활성화시켜, 아래로부터의 지방정부 대변활동 노력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업무 및 당사국 총회 결과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세계물포럼:** 2015년 세계물포럼 개최 결과에 따른 지방정부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것이다.



# E.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이클레이의 도시 의제

## 이클레이 10대 의제

- > 지속가능한 도시
- >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
- > 생산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 > 재난과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
- > 똑똑한 도시
- > 생태교통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 >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
-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및 녹색 구매
- > 도시-지역 간 지속가능한 협력

향후 수년 간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이클레이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는 도시 지속가능성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클레이는 지역은 물론 지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행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10개의 의제, 혹은 우선적으로 실천이 필요한 분야 10개를 규정하였다.

이들 10개 의제 각각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향후 전망과 자원 제약이 규정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도시가 다루어야 할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의 활동 내용과 성과는 2050년 도시 거주가 예상되는 60억 이상 인구의 삶의 조건은 물론 지구 생태계 및 경제 조건까지도 결정할 것이다.

이들 주제별 도시 의제를 통해 우리는 회원 도시가

- 사회적·문화적 안녕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
-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녹색 경제 창출을 통해 번영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 지구한계를 존중하는 방식의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돌보는 **지구**에,
-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기제를 이행하고, 도시-농촌의 연속성을 존중하며, 수직적 통합을 추구하고, 정부 이해당사자로서 전 지구적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통치를 위해 수립한 **정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10개 의제 각각은 의사 및 정책 결정, 관리와 거버넌스, 공공지출과 시민 참여 등의 측면에서 회원 도시들의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이들 중 어떤 의제라도, 이클레이 네트워크 범위 안에서 관련 구상-지역 차원의 것이든 대륙 차원의 것이 됐든-개발하거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 의제는 서로 연계돼 있고,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의 이행과 실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 활동을 촉발하고 지원한다. 이들 의제는 또한 지역의 노력과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지도록 하고, 지역 실천활동의 강화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이클레이가 기울이고 있는 전 지구적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클레이는 이상의 노력을 추동하고 지원하며, 각 의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회원 도시들에 조력을 제공한다.



# 10대 의제 실행을 위한 이클레이 전략

각 의제, 그리고 이클레이 각 업무 분야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접근법을 개발해놓고 있다. 이들은 우리 스스로 개발한 방법과 도구일 수도 있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전 지구적 업무 및 대륙별 업무의 조합일 수도 있다.

우측의 '이클레이 활동 유형'에서 우리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 이클레이 10대 도시 의제



## 이클레이 활동 유형

### 실천을 위한 사전 준비

- > 공약 프로그램
- > 주제별 리더십

### 지역 실천활동 지원

- > 지역 실천활동 프로그램
- > 방법론, 도구, 안내서 및 사례연구
- > 지역 실천활동의 혁신 & 새로운 포맷
- > 네트워킹 & 연결
- > 역량 강화, 교류 플랫폼
- > 행사, 총회 시리즈
- > 솔루션즈 게이트웨이 플랫폼
- > 대행기구 기능, 업무지원센터 및 상담
- > 성과 측정 및 평가

### 전 지구적 및 대륙별 프로세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및 대변활동

- > 자문기구로서의 이클레이의 전문성
- > 대변활동
- > 연맹 및 파트너십

###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활동 및 홍보

- > 회원 및 파트너 대상의 이클레이 미디어
- > 미디어 활동, 소셜 미디어

# 1.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는 현 세대에게 환경, 사회 및 경제 측면에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삶의 공간을 보장한다. 이 때 미래 세대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총체적이고 포용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생태적, 사회적인 목표를 경제적 잠재력과 연결하기 위해 정책들을 부문을 가로질러 통합해낸다. 하나의 목표를 다른 목표들을 희생시켜 가며 달성하는 방식의 분절된 접근법을 지양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도시를 위한 통합적 해법과 야심찬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한다.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관련 이해당사자, 동료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이라는 비전을 실행해낸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민주적,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을 발전과 성과의 토대로 활용한다. 동시에 도시라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지역 리더들이 성장하고 또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과 사회, 경제적 혁신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현명한 방식으로 목표를 이행하고 재원을 투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sustainable-city.html](http://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sustainable-city.html)

## 우리의 비전: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 이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위기와 재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생산적 및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다양한 생물과의 공존을 추구하고, 생태교통을 추구하고, 똑똑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며 상호 연계된 기회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할 것이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및 공공구매를 핵심 수단으로 하여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 비전 구현을 위한 이클레이의 접근 전략:

이클레이는 지난 25년 동안 회원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 녹색도시 등의 개념을 촉진해왔다.

-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 이클레이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이며 상호 연계된 도시 개발을 가능케 하는 방식의 정책 계획 및 이행을 촉진한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를 지지하며, 도시 연계 (Urban NEXUS)를 위한 기회요소들, 통합적인 도시개발 계획, 압축적이고 살기좋은 도시를 위한 각종 개념, 선구적 해법 등을 실현케 하고 있다. 이는 중심상업지구,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상호 연계돼 있는 도시-지역 등을 위한 새 비전을 포함한다.
- **세계의 선도 도시 네트워크:** 이클레이는 모든 형태의 도시 정주공간에 대한 혁신적이며 현대적인,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발전 전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식증진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전 지구적 규모로 이루어진 최고의 조직이다.
- **기준 사항을 지방정부들에 도전적으로 요청:** 이클레이 회원들은 스스로는 물론 다른 지방정부들에 혁신적인 도시 해법 이행을 도전적으로 요청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미래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선구자이며, 급속한 전 지구적 변화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을 앞장서서 부르짖는다. 우리는 새로운 정책 개념과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내는 선두주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 **지역 리더 네트워크:** 세계에서 가장 야심차고 가장 선도적인 회원 지방정부들은 이클레이 회원 자격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클레이를 모든 형태의 도시 문제를 집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회원들을 지원하고 더욱 더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조직으로 인식할 것이다.
- **지지자들을 격려:** 이클레이는 가장 선구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고 촉진하며 그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혁신적인 대화의 장, 대륙별 및 국가 사무소를 통해 제공되는 기타 매체 등을 통해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을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준 및 성과지표 선도:** 이클레이는 도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을 추동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도시, 생태도시, 또는 생태지구라는 용어가 전 세계 해당 지역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제로 드러내기 위한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진전 사항과 성공사례 측정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 **발전을 위한 도약:** 이클레이는 급속하게 도시화하는 지역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 녹색도시 등의 개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로써 자원 착취적이고, 탄소 집약적이며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구시대의 개발과 성장 모델로부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길은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통해 흐른다.”**

- 2012년 리우+20 회의를 무대로 열린 이클레이 글로벌타운홀 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2015-2021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 녹색도시** 부문 세계 선도 도시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기제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생태도시들’로 이루어진 멘토 집단을 만들어, 이 집단에 속한 회원들을 일대일 파트너십의 형태로 ‘**성과 파트너 도시(performance partner city)**’와 연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태도시를 개발하도록 영감을 부여하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도시 서비스 및 삶의 질 지표’ 2014 표준, ISO 37120에 따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세계도시데이터협회와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2015년 연말까지 100개의 회원 도시를 사업에 포함시킬 것이다.
- 가장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실천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과 측정** 체계 및 비교 가능한 보고 체계를 수립할 것이다. 이를 풍부히 하기 위해 ‘도시현황보고서’를 제안 및 개발할 예정이다.
- 역사적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지방정부 성과를 반복적으로 **측정**할 것이다. 이는 흐름을 분석하고, 또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도시들의 성공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 중국 티엔진 빈하이(Tianjin Binhai) 생태도시에 본거지를 둔 글로벌 **생태도시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시설, 녹색경제, 살기좋은 포용적인 도시 등을 촉진함은 물론, 도시개발, 자치정부 서비스 제공, 에너지와 물, 식량의 관리 등을 위한 **통합적 개념** (도시 연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이클레이 프로그램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 회원들, 특히 신흥 경제국들 사이에서 **생태문명**-중국에서 기원한 개념-이 어떻게 도시화 프로세스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역 현실에 맞추어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개척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속히 파급될 수 있는, 모범 도시를 포함한 이행 프로그램을 출범시킬 것이다.
- 싱크탱크를 촉진하고, 개념과 제안을 발굴하며, 관련 활동을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16년 10월에 개최되는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향한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이다.
-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집중적 참여를 도모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지역 지속가능성 연맹** 개념을 장려할 것이다.
- **유엔인간정주회의** 내 지방정부 대표 메커니즘에 대한 구상을 공유할 것이다.
- 전 지구적 범위의 **녹색도시 시상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에의 참여를 고려할 것이다.
- 전 세계 저발전국가들의 급속히 팽창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회기반시설과 고밀도의 인간정주공간에 대한 해법을 장려하기 위한 **담론과 혁신, 투자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이로써 이들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아프리카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 리더십 (ULAS)과 같은 **리더십 플랫폼**을 장려하고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는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리더와 투자 파트너들을 서로 연결하고, 영감을 부여하며, 역량을 강화하게 할 것이다.

## 2.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

###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

**저탄소 도시**는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71%를 도시가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촌 사회의 효과적인 대응은 지역 차원의 구상을 포함할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천'의 책임을 인식하는 도시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인 계획, 이행, 추적관찰, 그리고 (자발적인) 보고가 필요하며, 이는 저탄소의, 탄소 중립적 목표와 정책을 통해 지원돼야 한다.

저탄소 도시는 활발한 녹색 경제와 안정적인 녹색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가운데 탄소 중립성, 도시 회복력 및 에너지 안보를 향해 단계별로 접근하는 도시이다. 저탄소 도시에서 지방정부는 효과적인 수직적 통합을 통해 중앙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저탄소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노력을 더욱 더 확대한다. 세계 표준을 따라 국가 및 세계 플랫폼에 보고하고,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은 적절한 지원을 통해 더욱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low-carbon-city.html](http://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low-carbon-city.html)

### 우리의 비전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규모나 성장 추세, 개도국인지 산업선진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클레이가 제공하는 지침과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 비전 구현을 위한 이클레이의 접근 전략

저탄소 도시 의제를 통해 이클레이는 회원들이 전반적 발전 전략과 계획, 프로세스 등으로의 경로에서 저탄소 발전을 규정하고 채택하며 구조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내하며 기술적 지원 또한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클레이는 산업국과 개도국 간에 발전에 대한 접근법을 차별화할 필요를 인식하고, 이 의제를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 지역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전 세계 지방정부들을 지원함으로써 이클레이는 측정, 보고 및 검증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글로벌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기후 공약, 인벤토리, 기후 행동 등을 이클레이의 글로벌 보고 플랫폼에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실천활동들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가시성을 획득한다.

- **지역 지속가능성의 중추, '저배출 발전'을 향해 도시들을 전환: '녹색기후도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원 도시들이 저탄소 혹은 탄소 제로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내하며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진단과 실천, 가속화를 가능케 할 각종 혁신적 이행 사업, 서비스 및 도구를 제공한다.
- **글로벌 선도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과를 유도:**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세스와 지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유지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질적 양적 우수성을 보장할 관련 표준과 프로토콜을 보고 및 처리하기 위한 카본 기후등록부 및 관련 MRV (측정, 보고 및 검증 가능) 프로세스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 **에너지 체계 변화:** 회원들과 기술 전문가들 간의 만남을 증대함으로써 저배출의 회복력 있는 에너지 생산과 전송, 이용을 향해 효과적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한다.
- **시장협약**과 같은 공동 구상을 공식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타 도시 네트워크, 그리고 유관 구상들 간의 협력**을 증대한다.
-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를 통해 기후 이슈를 둘러싼 **동료 네트워킹**을 증대하고 전 세계 지방정부 리더들 간 교류를 촉진한다.
- 기후 완화와 기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솔루션즈 게이트웨이**와 같은 **혁신적인 자원과 도구**를 제공한다.



- 공동 계획 수립에서 조율과 보고까지 기초, 광역, 중앙정부 등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들 간 **수직적 통합**을 개선함으로써 기후행동을 최적화할 것이다.
- 유관 정부 간 협약, 기구, 메커니즘, 프로그램, 구상, 특히 중앙정부와 그 부처, 기업, 민간부문, 금융기구 등이 회원 도시들의 기후변화 완화 및 회복력을 위한 노력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 권한 강화(실천을 위한 역량) 및 지원’**을 위한 주창활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 회원을 대표하여 기후변화 타개를 위한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창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 기후 의제와 지속가능발전 의제, 기타 부문별 의제들 간의 유관 관계가 명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저배출 도시 발전 전략-기후 회복력과 자원 효율성, 생물다양성, 똑똑한 도시기반시설, 지속가능한 도시 경제와 공공구매 등에 대한 전략들을 보완한다-을 권고하는 제안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이클레이는 완화와 적응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타개를 위한 지구촌 사회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우리는 우리 회원을 대표하며, 국제 기후 협상에서 지방정부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 2015-2021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다음 내용들을 통해 이클레이의 녹색기후도시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지원한다. 이는 (지역) 재생에너지 이용, 녹색 경제 촉진, 지역 회복력과 저배출 발전 추진 등을 위한 야심찬 구상 강화를 목표로 한다.
- **‘화석연료 투자회수’**를 권장하여, 지방정부들에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대신 (지역)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것이다.
- 동아시아에서 시작하고 있는 **‘에너지 안전 도시’**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해당 도시의 에너지 체계를 15년 안에 저탄소, 저위험 및 회복력 있는 (100%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전략을 참여도시들과 함께 모색할 것이다.
- 다른 도시 의제는 물론 특히 **회복력 있는 도시 의제와의 상호 연계**를 강화한다.
- 이클레이의 HEAT+와 Clearpath를 토대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오픈 소스 타입의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도구는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 (GPC)’을 준수하는 방식의 인벤토리 취합 및 카본 기후등록부 보고를 지원할 것이다 (SAS 승인 여부에 따름)
-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도시 기후 플래너 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는 GPC를 준수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역량 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도시 보건을 위한 대기질 개선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 도시들을 지원하고 이들 도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이 노력은 기후및청정대기연합 (CCAC) 활동 범위 안에서 수행될 것이며, **도시보건구상 (UHI)**의 선도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다.
- CCAC의 **‘지방정부 고품 폐기물 구상’**에 참여함으로써 회원 도시들의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사업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다.
- **유엔환경계획의 ‘지역에너지 체계 가속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SE4ALL)’ 등의 구상과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현대적인 지역에너지 체계 출범을 위한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노력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최적화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한다.
- **SE4ALL의 ‘건물 효율성 가속체’** 구상과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녹색 건축물을 건설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개념,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도시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C40, UCLG, 유엔도시기후변화특사, 유엔인간정주회의,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지원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협약**을 권장하고 확대할 것이다.



다음의 활동들을 통해 21차 기후총회 및 이후를 겨냥하여, 지방 기후행동에 대한 국가 간 대변활동을 진두지휘할 것이다.

-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지방정부 그룹을 위한 협력창구 (focal point) 역할을 하고 있는 이클레이의 역량을 활용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카본 기후등록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지방 기후행동에 주목하도록 할 것이다.
- 2015년의 21차 기후총회와 그 이후까지 겨냥하여 활용되고 있는 대변활동 프로세스인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하에서 이클레이 파트너십을 조율하고 강화할 것이다. 이 때 새로 마련된 전환행동프로그램을 특별히 강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기후협상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전 지구적 논의 간의 연계 및 양자 간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더 강조할 것이다.
- '성과 가시화를 위한 통로'로서 전환행동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와 지역들이 각각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잠재적 자금원들 앞에 체계적이고 유익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21차 기후총회 (2015년 파리)에서 전환행동프로그램 파빌리온을 조직하여, 100대 전환행동프로그램 1차분을 파리 르부르제의 21차 기후총회를 무대로 여러 재정 기구들 앞에 제시하고 관련 주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 특히 멕시코시티협약, 더반적응헌장, 세계환경도시상 (EHCC), 시장협약, R20-기후행동지역, 생태교통연맹, 회복력있는도시아메리카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각 파트너 구상 (기관) 조인 도시들을 카본 기후등록부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다.
- 공약과 인벤토리를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전환적인 기후 행동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방정부들을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카본 기후등록부를 강화할 것이다.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 및 신규 파트너십 강화:**

-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 회원들을 위해서, 활발한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로써 이클레이의 기후 업무와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 간 연계성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다.
-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 회원들에게 업데이트 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도시 간 교류 및 권역별 집행위원회 소속의 이클레이 회원들과의 연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새로 체결한 파트너십들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동시에 기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동일한 높은 수준의 혜택을 회원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다.
- 도시기후재정리더십연합 (Cities Climate Finance Leadership Alliance) 범위 내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3. 생산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 우리의 비전

이클레이 회원은 모두 환경적, 사회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적인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정을 강화할 것이다. 순 생산 체계(net productive systems)로 전환할 것이다. 그 대신 국제 자원 사슬에 대한 의존과 자원 추출로 인한 도시 주변부 및 배후지역에 대한 부담은 줄여갈 것이다.

## 비전 구현을 위한 이클레이의 접근 전략

자원효율성 및 도시 생산성은 단일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대신 모든 부문에 걸쳐 전략적으로 닛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클레이는 회원들에게 조직적인 절차와 거버넌스 구조를 개발할 것을 조언한다. 착취적이기보다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공평한 자원 이용을 위한 지속가능성 관리 도구를 적용할 것을 조언한다.

- **관리 체계 및 프로그램:** 이클레이는 순환적 관리 체계, 재활용, 재사용과 업사이클링, 자원 소비 진단, 에코버짓(ecoBudget),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등을 장려한다. 저탄소의 회복력 있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통합적인 도시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생산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를 위한 수단들이다.
- **통합적 접근법:** 이클레이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자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법을 위한 지침과 전략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도시 연계(Urban NEXUS) 접근법은 부문을 가로지르는 의사결정과 통합적 및 전체적인 행동이 제공하는 기회와 혜택에 주목한다. 이들은 불통의 부서 간 장벽에 갇힌 재래의 작업 방식에 대한 필수적 대안이다.
- **도시-지역 협력:** 이클레이는 지역적 접근법, 지역적 관점을 권장한다. 자연의 자원 체계와 인구 이동은 관할 경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는 자치정부들, 지역 당국들 간 우호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통합적 도시 물관리:** 이클레이는 물공급, 폭우, 그리고 폐수관리 사이의 복수의 연관관계를 인식하는 시스템적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회원들이 도시 물 주기를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이클레이는 공중보건, 에너지 서비스, 기후변화 적응 등 지방정부 책임 범위 내의 그 외 여러 부문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 종종 생태도시로 불린다-**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자원 개발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한다. 물, 공기, 토양, 영양분, 광물, 자재, 동식물, 생태계 서비스, 사회적 경제적 자원 등 해당 지역 내 자연자원 및 인적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를 달성한다. 도시 자원 관리 최적화를 위해 자원이 파괴되거나 남용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자원의 질, 자원 보충, 자원 회복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산적인 도시**는 현재나 미래 도시 체계의 효율성 개선이라는 범주를 넘는 개념이다. 생태, 경제 및 사회 측면에서 순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신도시, 또는 새로운 도시 개발을 포함한다. 생산적인 도시는 따라서 국제 자원 사슬에 대한 의존과 자원 추출 부담을 줄이고, 마찬가지로 도시 주변부 및 지역 배후지에 대한 의존 역시 줄여나간다.

생산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는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 물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식량** 생산(도시농업)과 회복력 있는 도시 식량 체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이다.



-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식량 체계:** 다양한 자원이 도시-농촌 맥락 속에서 가지는 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을 드러냄으로써 이클레이는 회원들이 식량 체계를 발전 전략에 통합하고, 일반 대중 및 민간 의사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증진 및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안내한다.
- **자재 및 폐기물 관리:**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많은 이클레이 회원들이 실천하고 있는 개념들이다. 자재 순환 관리, 산업 공생관계, 자재를 감소하는 형태의 삶의 방식, 소유보다는 공유 등은 새로운 유형의 자재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선진적 접근방식이다.

## 2015-2021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 생산적인 도시:

- 도시 생산성 공동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모범 도시들이 각자의 도시 지역을 자원 순 생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개발, 시험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에는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 체제로 '도시 생산성'을 연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모범 도시**(지역사회)가 도시 생산성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 유엔환경계획 주도의 자원효율적도시글로벌구상 (**GI-REC**) 범위 안에서 새로운 협력 단계에 **진입**한다. 이를 통해 도시 자원효율성 관련 역량강화, 접근 가능한 지식 캠페인,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한 도시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클레이는 도시 수준의 자원효율성을 위한 툴킷을 개발하고 시범도시들에서 이를 시험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자원에 대해 3년 안에 **10%까지 소비를 줄이는 효율 개선 프로그램**에 착수/권장할 것이다. 이클레이는 2018년 개최되는 차기 세계총회까지 공약과 이행 내용을 추적하고 이를 새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보고할 것이다. 파트너기관들도 협력 제공 형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매년 **도시 연계** (Urban NEXUS) 포럼을 개최하여 연계 중심의 사고를 펼치는 무대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을 확고히 할 것이다. 이는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 시리즈와 연계 개최되거나, 도시 연계를 위한 독자적인 포럼이 추진될 것이다. (파트너로 참여하는 회원 도시들과 함께 개최 예정)
- 회원들에게 **공유도시** 개념을 장려하여 공유경제를 촉진하고, 시민들과 업계로 하여금 재화를 함께 소유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물:

-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사업,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전 세계 회원 도시들이 통합적 도시 물관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지역** 수준의 물 프로그램을 새로 출범할 것이다.
- 유엔인간정주회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세계물위원회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물 포럼** 맥락 속에서 지방정부를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광역 지방정부 중심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2015년 4월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물포럼** 지방정부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이행 전략을 **‘포스트-2105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연계하여 개발한다.
-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도시와 지방정부, 관련 네트워크를 위한 범 아프리카 플랫폼으로 공식 인정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방정부 물/위생 네트워크 (AWASLA)**를 장려하고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직적 통합을 옹호하고 장려하며 이행하고, 지역 투자와 파트너십을 가능케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시 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 수질, 관련 사회기반시설과 거버넌스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물과 자재 관리:**

- **자재 관리:** 회원도시들이 자재 관리, 폐기물 감소, 도시 광산 등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 회원의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기업과의 협력:**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공생 프로젝트 등 새로운 접근법을 주제로 회원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 체계/ ‘도시 농업’:**

- 도시 지역 내에서 식량 생산을 늘리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 체계를 지역적 맥락에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들로 이루어진 **세계 네트워크(도시식량)**를 수립하고 지원한다.
- 도시농업식량안보자원센터재단 (Resource Centers on Urban Agriculture & Food Security Foundation, RUAF)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식량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행하여 회원 도시들이 회복력 있는 도시-지역 식량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복력 있는 도시-지역 식량 체계는 이클레이가 착수할 관련 미래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로 추진될 것이다.
- 연례 **도시 농업 정상회의**를 조직하고 정보 공유와 정책 개발을 위한 행사들에 더욱 더 활발히 참여한다.
- 파트너십을 토대로, 기술적 정책적 자료, 그리고 전 세계 도시-지역 식량 체계에 대한 지역 실천활동 사례를 취합해 제공할 전 지구적 범위의 관련 웹사이트를 새로 구축하여 도시 식량 주제의 **온라인 노출**을 확대한다.
- **도시지역식량체계세계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on City Region Systems)**에 참여한다.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 관계를 공식 구축한다.



# 4. 재난과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는 도시의 핵심 기능과 구조,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외부 충격이나 압박도 흡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 지속적인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번영하는 도시이다.

도시가 직면한 변화에는 자연재앙, 산업재해, 환경적 위기, 경제적 충격, 기후변화 여파, 급격한 인구변화, 그 외 예측하지 못한 도전과제들이 포함된다.

회복력 구축을 위해서는 위험의 인식과 파악, 취약성과 노출 감소, 저항력, 적응 능력,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태세 등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resilient-city.html](http://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resilient-city.html)

## 우리의 비전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도시의 핵심 기능과 구조,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외부 충격이나 압박도 흡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갈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최적의 회복력 및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과 계획, 투자를 조정해갈 것이다.

## 비전 구현을 위한 이클레이의 접근 전략

*회복력 있는 도시 의제를 통해 이클레이는 회원도시들이 위험을 진단하고, 회복력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며 그러한 전략을 지역 발전 계획과 과정들에 구조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고 안내하며 지원할 것이다.*

- **인식과 동원:**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이클레이의 핵심 전략은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증진하고 모범 사례를 권장하며 필요한 실천활동을 지도 안내하는 것이다.
- **변화 추동하기:** 이클레이는 도시 회복력에 대한 국제적인 개념, 접근법 및 전략을 사고하는 리더이자 추동자로서, 각각의 연구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지역과 지구 연계:** 지역 회복력 구축을 위한 직접적 지원과 전 지구적 여건 개선을 위한 대변활동을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이클레이 접근법의 핵심을 이룬다.
- **지역을 강조:** 이클레이 지역 사무소는 회원 도시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법과 도구, 지침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자원, 각종 지식공유 구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적 맥락에 맞는 실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 **글로벌 플랫폼 제공:** 도시 회복력과 적응을 주제로 본에서 열리는 연례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는 혁신과 전략 구축, 보고와 토론, 교류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역 및 국가 수준의 포럼들로 보완되도록 할 것이다.
- **자원 마련:** 이클레이는 회복력 구축을 위한 충분한 자원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공공과 민간 주체를 포함한 지구촌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클레이의 전 지구적 대변활동 및 파트너십은 회복력 있는 도시 프로그램을 대륙과 국가 차원에서 이행하고 관련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회원들:** 선별된 모범 도시들과의 집중적 작업의 결과물은 일반에 공개되거나 회원에 국한돼 제공되는 각종 온라인 자료, 그리고 맞춤형의 요금제 서비스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확산된다. 회복력 구축은 지역화된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

## 2015-2021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 최소 25%의 **회원 도시들**이 위험, 회복력 정책, 적응을 위한 공약, 계획 및 실천활동을 규정하고 보고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과 자원 배정을 회복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연구, 보고서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회복력 계획 수립을 위한 **툴**을 더욱 더 많이 개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회원 대다수, 그리고 그 외 관심을 보이는 지방정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글로벌 주체들을 위한 협력창구로서의 이클레이의 입지를 최적화할 것이다. 지역 회복력 구축 과정에 있어 우리가 쌓아온 수많은 경험을 잘 활용하여 **최신 연구결과물**, 혁신, 도시 성공사례 등을 취합하고 장려할 것이다.
- 현장 사무국, 지역 센터, 글로벌 대변활동 등을 통해 **더반적응현장**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조인도시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 본에서 매년 열리는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를 선도적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기존의 **대륙별 회복력 있는 도시 총회** 및 포럼을 강화하고 새 포럼을 출범할 것이다.
- 중국에서 **회복력 있는 도시 중국 포럼**을 파트너들과 함께 출범할 것이다.
- 위험에 처한 **군소도서국가**를 위한 회복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출범한다. 이는 도시 대 군소도서국가 협력 체제를 포함한다.
- 저지대 델타 및 해안도시의 미래에 대한 전 지구적 담론을 주도하고 장려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퇴거나 이전을 위한 장기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전략들의 법적, 제도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제시할 시범사업을 장려하고 주도할 것이다.
- 회복력을 준비 중인 세계 **선도 도시** 집단을 구성하고 지원할 것이다.
- 각종 **도시적 위험**을 파악하고 진단하며 감소시킬 수 있도록 회원들을 지원하는 전 지구적 구상을 개발할 것이다.
- 이클레이 회원들 사이에 **자연재해와 산업재해**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취약성 진단, 위기 감소 기회요소, 회복력 계획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증진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시들이 회복력/위기 수석 담당관 직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이클레이-그외 파트너들이 추진하고 있는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 지역 회복력 계획 및 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전 지구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시 회복력 지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도시 위험 및 회복력을 위한 '**표준화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기획할 것이다. 이는 도시 위험 현황 정리, 활동 보고, 영향 분석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 데이터 이용/오용, 데이터 손실 등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시 **데이터 회복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의 바람직한 데이터 의존 수준을 정립할 것이다.
- 포스트-2015 **재해경감체제** (센다이 체제)의 이행을 지원할 것이다.
- **시장협약** 하에서, 그리고 **카본** 기후등록부에 보고하는 지방정부 중 200개 이상을 조사하여 도시 회복력의 진전 상황을 추적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 많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역, 국가 및 전 지구적 차원의 정치, 재정 기구들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 **도시기후재정리더십연합** 범위 안에서 협력을 추진해 갈 것이다.



# 5.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는 다양한 자연 세계는 인간 존재의 토대임을 안다. 생존과 삶의 질을 위해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는 생태계서비스는 지역 경제와 지속가능성, 사회적 안녕은 물론 다수의 지방정부 필수 서비스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도시에서의 생물다양성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생물다양성 추가 손실을 막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전 지구적 교육과 인식을 위한 지역 차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도시 생물다양성은 그 외에도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건강, 빈곤 완화, 서식지 보전, 대기과 수질,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식량 공급, 사회기반시설의 회복력 강화,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도 연계돼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www.cbc.iclei.org](http://www.cbc.iclei.org)

[www.urbis.org](http://www.urbis.org)

## 우리의 비전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모두 (도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를 인지하고 존중하며 토지이용, 개발 계획 및 관련 정책 결정에 통합하도록 할 것이다.

## 비전 구현을 위한 이클레이의 접근 전략

생물다양성 도시 의제를 통해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전략과 계획, 과정들에 생물다양성 의제를 포함하고 통합하며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 도시들을 격려하고 안내하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클레이는 생물다양성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방정부 맥락에 맞는 각기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법과 강조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이클레이는, 비록 생물다양성 도시 의제가 공통의 원칙과 우수 사례들로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네트워킹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또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의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국제 생물다양성 협상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생물다양성 지역 실천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음과 같이 다져오고 있다. 이들은 이클레이의 도시생물다양성센터 (CBC)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휘 및 조율되고 있다.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에 대한 인식 증진을 통해서 회원들을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확산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과학적 및 실천 기반의 증거들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학술기관, 국제기구, 기타 프로그램들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한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 및 방법론을 제공한다.
- 지역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관리, 계획 및 통합에 대한 전문가 지도, 서비스, 도구, 자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링크 형성**: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속가능성, 회복력, 생태계서비스, 웰빙, 빈곤 완화, 일자리 창출 등과 통합하면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혜택을 무수히 제공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모든 차원의 거버넌스에서 **생물다양성을 의사결정에 통합시키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한 도시 목표, 특히 토지 이용 관리, 개발계획 및 도시 인프라 등에 크게 기여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회원 간 학습 및 교류 경험**을 축적하여 공통의 과제를 극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어야 한다. **연구자와 실무자를 연결**하고 파트너 기관 및 네트워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공간 개발 체제 등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공동 추진, 조정, 보고 등 생물다양성



실천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서로 다른 차원의 정부들 간 **수직 협력을 개선한다.**

- 지방정부 및 도시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 **지구적 주창활동**을 주도하고, 이클레이 회원을 지원하는 전 지구적 프로세스들-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등 그 외 유엔협약 및 국제 플랫폼-에 지방정부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보고한다.



## 2015-2021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 2009년 이클레이 아프리카 사무국이 설립한 **도시생물다양성센터 (CBC)**를 도시 안, 그리고 도시와 그 파트너들 간에 이루어지는 도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업무에 관련 이해당사자, 파트너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글로벌 허브이자 진입 창구로 강화할 것이다.
- **회원들이**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5천만 명 이상이 지방 행정당국이 내린 결정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 광역지방정부를 위한 생물다양성 지역실천활동 (LAB)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착수할 것이다. 또한 **LAB-남아공** (기후변화 속의 습지 관리) 및 **LAB-한국**을 출범할 것이다.
- LAB 프로그램 중 시험하여 검증된 요소들에 기반한 일련의 **서비스**를 출범하여 유연한, 그리고 맞춤형의 지원을 지방정부들에 제공할 것이다.
-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 도시 생물다양성을 위한 **실천활동 및 성과 보고 글로벌 플랫폼**을 출범하고 카본 기후등록부와 나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도시의자연 심포지엄**을 2015년, 2018년 및 2021년 이클레이 세계총회에 맞추어, 총회 고정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것이다.
- **2016 도시 생물다양성 정상회의**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이클레이 CBC 및 이클레이 멕시코 사무소와 공동으로,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13차 총회와 나란히 개최할 것이다.
- 최첨단 글로벌 구상인 '**생물다양성 거점도시 (Cities in Biodiversity Hotspots)**'를 협력적으로 출범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재화 및 용역을 경제발전과 토지 이용 체제에 구조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도시생물권 구상 (URBIS)** 사무국으로서의 이클레이의 역량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다. URBIS 웨비나 시리즈를 계속해서 개최하여 URBIS 회의를 강화하고, 도시 생물다양성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도시를 시상하는 공식 프로세스를 개발해 시행할 것이다.
- URBIS 사업으로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지역적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프리카 도시 자연 유산 프로젝트를 사하라 이남 도시들을 대상으로 출범할 것이다.
- 연안 도시들을 대상으로 **연안통합관리 (ICM)** 구상을 출범할 것이다. 이는 급속한 서식지 파괴, 연안 인구 증가, 기후변화 등의 위기 속에서 훼손되기 쉬운 연안 생태계의 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지방정부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Cities and Subnational Governments)** 회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다.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의 생물다양성도시 직능 대표가 의장으로 있는 **생물다양성자문위원회 (BAC)** 사무국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해갈 것이다.

## 6. 똑똑한 도시

'똑똑함 (smartness)' 은 지속가능발전과 회복력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똑똑함'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의미하며, 올바른 의사결정과 장기 및 단기적 시각을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좋은 거버넌스와 적절한 제도적 인프라, 프로세스 및 행태, 그리고 방법과 기술, 천연자원의 '알맞게 혁신적인' 이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세대 간 형평성, 환경정의, 사회통합 등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핵심 원칙은 '똑똑함'의 토대를 이룬다.

**똑똑한 도시**는 '똑똑함'을 도시 운영에 구조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도시이다. 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가 되겠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따르는 도시이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정보 평가 기제 (information feedback mechanisms)를 통해 도시 체계-에너지, 물, 폐기물, 교통, 오염물질 등 물리적 체계는 물론 사회적 및 경제적 통합,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 사회적 체계까지-를 분석하고 추적관찰하며 최적화한다.

똑똑한 도시는 학습과 적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시스템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통합성, 응집력, 대응성,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및 물리적 체계의 작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smart-city.html](http://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smart-city.html)

### 우리의 비전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사람 중심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적 사고 (systems thinking)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물리적, 사회적 체계 및 통치 체계를 최적화해 갈 것이다.

### 비전 구현을 위한 이클레이의 접근 전략

다음은 똑똑한 도시에 대한 이클레이 접근 전략의 초석을 이루는 것들이다.

- **사람 중심:** 특히 정보통신 기술 및 자동화 기술 이용 증가 등 기술 진보로 발생하는 기회 및 도시개발 해법이 똑똑한 도시 담론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도시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관련 기술과 인프라, 도시체계가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시체계는 **사람의 체계** (systems of people)이다. 진보적 기술 해법의 채택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그것이 도시 거주민, 그리고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지에 달려있다.
- **지속가능성을 위한 똑똑한 도시:** 이클레이는 똑똑한 도시 개념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개념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있으나, '똑똑한 도시'가 표준적 개념으로서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대체할 수는 없다.
- **지역 실천활동과 정보교환:** 이클레이는 도시들이 지역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 똑똑한 도시 해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접근법으로 도시들 간 똑똑한 도시 전략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각 도시는 지역 맥락에 맞는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똑똑한 도시 해법 및 접근법에 대한 도시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정보 및 지식 교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회원 도시 간 상호학습은 그러므로 똑똑한 도시 해법을 전 지구적으로 장려하는 데 필수적이다.
- **표준화:** 지방정부의 똑똑한 도시 및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표준화 논의 참여는 지역 자치 강화에 필수적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을 주류화하고 도시 및 주민들을 위한 '똑똑함'을 장려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술 진보와 혁신적 해법은 똑똑한 도시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이다. 게다가, 민간 부문 주체에 의한 도시 내 물리적 흐름과 인프라 관리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민간 부문 이해당사자들과의 **전략적 및 장기적 파트너십** 수립은 따라서 똑똑한 도시에 대한 이클레이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

- **도시-기업 간 협력:** 이클레이는 도시-기업 간 대화 및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기업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문 주체는 서로 다른 비전과 이해관계, 언어와 제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양자 간 대화 및 혁신적 협력을 장려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클레이는 도시가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과제들에 대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시-기업 간 협력**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결정적 이슈로서의 시스템 통합 및 도시 연계 (Urban NEXUS):** 도시체계 통합 (정보 평가 기제 수립, 도시적 흐름 상호 연계, 거버넌스, 혹은 도시 내 다양한 물리적 및 제도적 구조와 도시계획과의 통합 등)은 시너지 창출 및 도시와 도시 기능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 2015-2021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 연구, 사례연구, 출판물 등을 통해 똑똑한 도시 구상 및 해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식 풀을 확대**할 것이다. 핵심 주제는 시스템 분석, 시스템 맵핑, 데이터 발굴 및 관리, 스마트 센싱 및 맵핑, 스마트 조명 및 인프라 통합, 정보통신기술 도시 적용, 데이터 보안, 사생활 보호, 투명성, 공정하고 포용적인 데이터 접근 등이다.
- 특히 에너지와 자원 효율성, 도시교통 및 민간 참여 부문에서 '똑똑한 접근법'이 제공하는 기회를 발굴하고 도시들과 공유할 것이다.
- 이러한 지식을 회원들에 공개하고, 자문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똑똑한 도시에 대한 국제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똑똑한 도시를 장려할 것이다.
- 저탄소 발전을 위한 이클레이의 **솔루션즈 게이트웨이 (Solutions Gateway)**를 더욱 더 확대하여 똑똑한 도시 해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수립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민간 및 기업 부문의 파트너들을 참여시켜 내용 확충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 똑똑한 도시에 대한 시범 및 **선도 사업**에 착수하고 지원한다. 그 이행과 평가, 그리고 이들 사업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도시 기반시설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조직적 및 제도적 해법을 제공하는 박람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지방 행정의 수요를 업계에 제공하고, 도시와 기업 간 대화를 위한 통로를 제공한다. **2015 메트로폴리탄솔루션, 2016 메트로폴리탄솔루션** (이상 베를린) 및 **2015 세계 효율성 총회** (파리)를 예로 들 수 있다.
- 이클레이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 및 기업이 협회와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견고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 파트너들에 대한 회원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기업 간 협력을 장려한다. 이들 파트너십 협약은 행사, 솔루션즈 게이트웨이, 이행 사업, 연구, 출판 등의 협력 모듈로 이루어지며, 비구속적인 양해각서 지위를 넘어설 것이다.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BCSD)**와의 파트너십 하에 도시-기업 간 제도화된 협력 모델을 새로 정리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하고 포용적인 복수 이해당사자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문서를 제공할 것이다.
-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이클레이가 현재 참여 중인 똑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표준화 작업 과정**들에 더욱 더 폭넓게 참여한다. 이클레이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참여를 강력히 지원할 것이다.
- **녹색건축물, 지역재생에너지, 기타 물리적 체계들에 대한 기존 활동을 확대**하고, 표준, 정책, 법규, 실제 계획 등을 도시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 **똑똑한 도시 우수 리더십**을 인정하고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7. 생태교통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생태교통 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더 살기좋은, 접근성 있는 도시 창조라는 목표를 완수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감축하고, 대기질 개선, 공공공간 이용 방법 개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교통수단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의 핵심 요소는 생태교통으로서, 이는 통합적이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이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생태교통은 자가용을 대체하는 통합적 교통수단으로서 걷기, 자전거, 수레, 대중교통 등으로 구성되며,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공유 차량과의 통합을 추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ecomobilecity.html](http://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ecomobilecity.html)

## 우리의 비전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걷기, 자전거 및 대중교통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 이는 통합 및 공유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도시 공간의 더 공평한 이용을 가능케 하는 교통과 이동방식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 비전 구현을 위한 이클레이의 접근 전략

이클레이는 지속가능한 교통에 체계적인 접근전략을 통합해낼 수 있도록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 **통합적인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수단 및 생태교통을 토지이용, 교통계획 등에 통합하는 것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회복력이 있고 똑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 **통합적 교통 체계:** 통합된 체계를 통해 사람과 상품을 이동시키는 것이야말로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목표로 하는 것은 비동력 교통 인프라를 실행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고 대중교통의 통합성을 더욱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새로운 기회:** 여러 개의 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체계는 도시 발전 및 사람 중심의 공공공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 **분석과 평가:** 이클레이는 도시 교통 성과 측정, 추적관찰, 평가 등을 위한 맞춤형 도구 개발 및 실행을 통해 회원 도시들이 도시 교통 발전 과정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접근성 및 파트너십:** 전 지구적, 대륙 차원 및 지역 수준 교통 전문가들과의 소중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창출할 수 있다면, 생태교통 개념화, 발전 및 실행 지식에 대한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의 접근 역량은 크게 확대 될 것이다.
- **지역별 활동:** 지금까지 생태교통은 선구적 도시 및 글로벌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협력적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이클레이의 글로벌 구상이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대륙 차원에서 인식증진 활동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 경험을 지역 차원에서 확산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하는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 2015-2021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 도시 교통 수단을 개발하도록 회원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5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생태교통 관련 활동이 제공하는 혜택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 교통 성과 측정 및 추적관찰을 위한 **시프트 (SHIFT) 방법론**을 유럽 외 지역들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북미,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가 될 것이다.
- **생태교통도시연맹** 회원을 2018년까지 30개 도시로 확대하고, 연맹의 전 지구적 활동을 공동 지원할 새 의장도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015년 10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2015 생태교통 세계축제 및 회의**의 실행을 지원할 것이다.
- 2016년 및 2021년 생태교통 세계축제 및 회의 **유치** 신청 과정에 착수할 것이다.
- **각 도시 상황에 맞추어** 차없는날 한 달 운영을 추진하도록 도시들을 격려할 것이다.
-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도시 보건과** 교통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할 것이다.
- 도시 화물 (**생태물류**)에 대한 프로그램을 출범할 것이다.
- 대중교통, 대안 연료, 혁신 기술, 혁신적 재정 기제, 기타 도시 교통 인프라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기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가 발굴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에 대한 기술 문서 및 정책 문서를 취합,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선하여 생태교통 주제를 **온라인 상에서 더 많이 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생태교통이 전하는 메시지 및 성공사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8.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는 발전의 일차적 지표로 GDP를 넘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 고려하는 사회이다. 이들 도시는 활기차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롭고 안전하다. 동시에 교육과 문화, 녹색 고용과 높은 삶의 질, 좋은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상호작용 및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점점 더 고령화돼 가는 사회의 필요는 물론, 청년층 또한 고려하여 정책을 기획한다.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지역사회는 개인과 사회 일반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추구해 간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healthy-happy-and-inclusive-communities.html](http://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healthy-happy-and-inclusive-communities.html)

## 우리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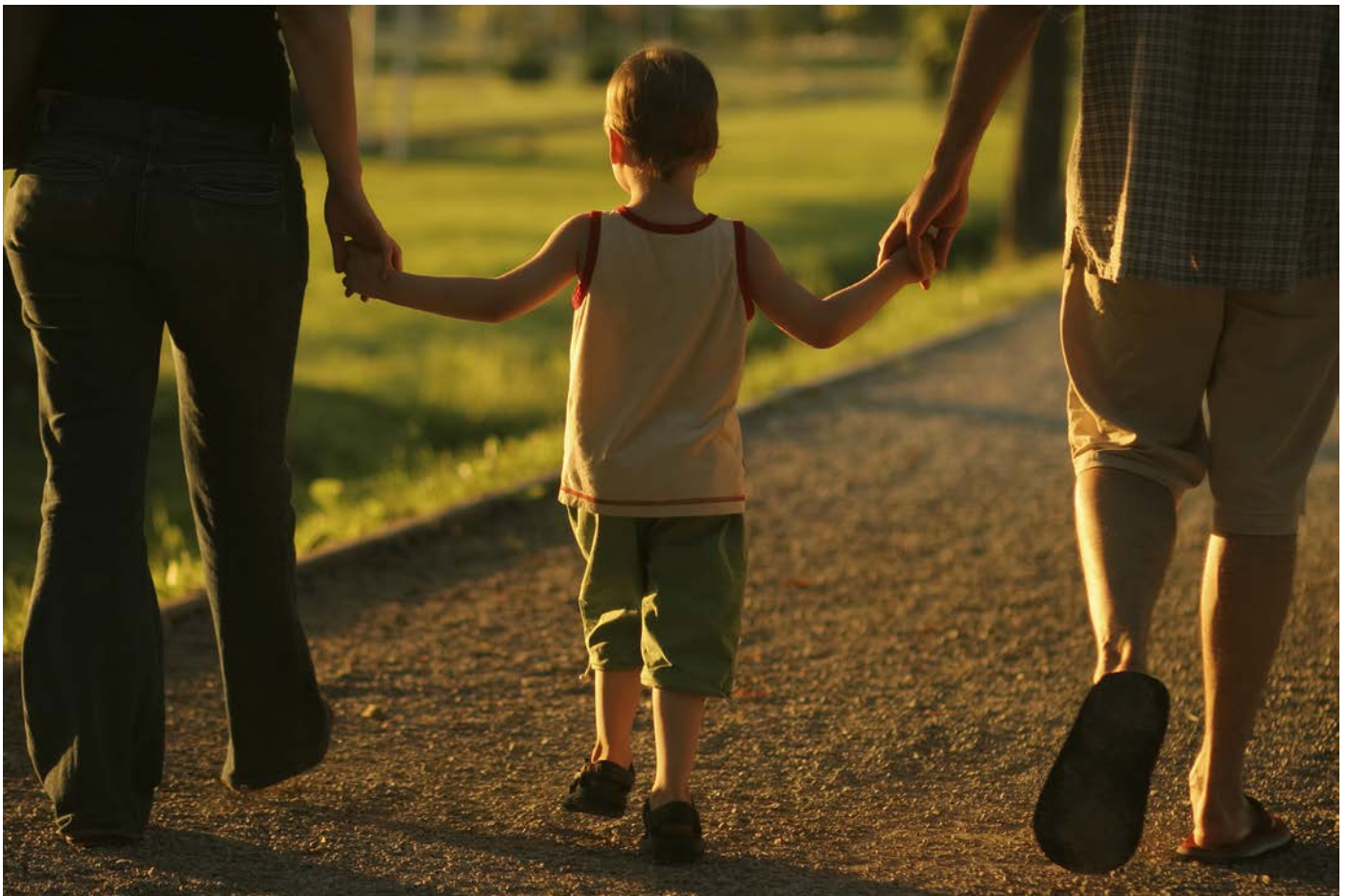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활기차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 측정을 추구할 것이다. 동시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공공공간, 활동적인 이동수단 (active mobility), 건강한 환경 등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갈 것이다.

## 비전 구현을 위한 이클레이의 접근 전략:

- **인식과 동원:**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은 모든 도시가 지켜야 할 강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클레이는 회원 도시들이 안녕, 건강, 행복, 주민참여, 사회적 포용성 등을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목표로 편입시킬 것을 권고한다.
- **지역 실천활동:**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정책 개발, 실행 및 성과 평가 작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 **도시를 연결:** 이클레이는 주민 건강 및 행복에 기여한 정도로 구상 (계획)을 평가하거나 대기, 물, 공공공간 등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모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도시들에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GDP를 넘어서는 발전'에 대한 논의:** 이클레이는 성공과 진보를 측정하기 위한 GDP 대안 지수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추동하는 이론적 선구자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갈 예정이다.

## 2015-2021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측정하는 **평가 프로그램** 개발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주제로 협력할 의사가 있는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 아프리카,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주제로 한, 적절한 맥락을 가진 **대륙별 프로그램**을 출범하기 위한 기회를 발굴할 것이다.
- **도시 교통수단과 보건**, 그리고 공중보건과 건조 환경 간 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 **녹색 순례 네트워크** (Green Pilgrimage Network)를 통해 현재 탐색되고 있는 문화와 지역사회의 안녕 간 연계성을 더욱 더 강조할 것이다.
- 환경, 건강 및 시민의 안녕을 중심으로, 활기차고 포용적인 **공공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회원 도시들에서 출범할 것이다.
- 3차 인간정주회의 (Habitat III)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와 같은 전 지구적 논의와 이 의제 간 연관성을 널리 알리고 설명할 것이다.
- 건강하고 행복하며 포용적인 원칙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 도시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평가**하는 전 지구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 부탄 소재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 **행복지수**를 공동 개발한다.





# 9.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녹색구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는 인간 안녕과 사회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적 위험 및 자연 자원의 희소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사회적 책임 및 다양성을 강화한다.

이는 녹색성장 산업 부문 일자리,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 혁신, 기능과 기업가정신 등 이들은 모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이다. 이를 창출하는 경제를 우선시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산 및 소비 모델을 추구한다. 자원 소비 및 환경 훼손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적 및 사회적 비용을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제이다. 이는 관련 정책과 법적, 재정적 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지향적 지방정부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다.

## 우리의 비전

이클레이 회원 도시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자의 법적, 재정적 수단 및 도시 계획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공공구매를 우리의 구매 표준 관행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우리의 구매력을 활용,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 비전 구현을 위한 이클레이의 접근 전략

### 지속가능한 경제

이클레이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녹색 지역경제를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성장과 자원소비 간 연결고리를 끊는다.
- 민간 및 공공부문 내 순환 경제
- 혁신적인 청정 기술, 친환경 디자인, 사회적 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
- 지속가능한 경제 개념 및 모델에 대한 투자 장려
-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 회수 전략
- 가격 산정 시 수명주기 비용 포함
- 공공행정 현대화로 역동적인 경제적, 사회적 변화상 반영

###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이클레이의 목표는 양질의,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공공구매 관행을 실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전문가 자문, 네트워킹 기회, 교육 및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클레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접근 전략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 공공기관에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목표 달성 수단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공공구매를 **장려**한다.
- 사람들이 찾아와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공공구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지식 거점을 **제공**한다.
-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공공구매를 실행하는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공공구매를 실행하는 공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도구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한다.
-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공공구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공공기관 구매자와 공급자 간 대화를 **촉진**한다.
- 정책입안기구와 공공기관을 **연결**하고, 국가 차원, 유럽 및 세계 차원의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공공구매 구상 개발을 위해 자원을 투입한다.



## 2015-2021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 지속가능한 경제

- 지속가능한 경제 **원칙**을 사업 설계 및 관련 방법론에 반영한다.
-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회원 간 **협력** 및 추진을 지원한다.
- **'공유도시'** 개념을 지지한다.
- 지역 경제 순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지역화폐'**에 대한 경험을 회원들 간에 공유한다.
- 지방정부와 (향토) 기업 간에 제도화된 **협력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분석하며 관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BCSD)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공공구매를 실행 중이며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도시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의장 도시 역할을 맡아 지원한다.
- 중국에서 녹색공공구매 회의 (EcoProcura Conference)를 연속 개최하도록 한다.
- 이클레이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남미, 아프리카 및 동아시아에서 **공공구매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구상**을 출범한다.
- **프로큐라+ 캠페인** (Procura+ Campaign)을 더욱 더 발전시켜 유럽 녹색 공공구매 및 혁신 네트워크로 확대 개편한다.
- 유럽에서 **지방정부 공공구매** 네트워크를 시범 운영한다.
- **프로큐라+ 세미나** 시리즈를 통해 유럽 내에서 양질의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 공공기관을 초청하여 가장 최신의 주제를 논의한다.
- 2017년과 2021년 사이에 유럽에서 **녹색공공구매 회의** (EcoProcura Conferences)를 추가로 조직하고 유치도시들을 공모한다.
- 이클레이 **프로큐라+ 설명서** 제3판을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이행 방법을 안내하고, 아울러 유럽 외 지역들에 맞게 조정하고 확산한다.
- 폐기물 관리, 예방 및 처리 분야, 그리고 혁신적인 바이오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저탄소 해법을 모색하는 공공구매 **공동체**를 다수 출범한다.
- 폐기물 관리, 예방 및 처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저탄소 해법을 모색하는 PP14 폐기물 프로젝트에 기여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를 실천해 나간다.
- 유럽위원회를 대신하여 **'유럽연합 GPP 업무지원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여 녹색 공공구매에 대한 문의를 처리하고, 사례연구를 제공하며, 유럽 내 공공구매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 유럽위원회가 발간한 **'친환경 공공구매 안내서'** (제3판)를 업데이트한다.

공공구매는 지속가능성과 혁신 추진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커다란, 그러나 간과되기 쉬운 기회들을 제공한다.

**혁신적이면서 지속가능한 공공구매**를 집행함으로써 지방정부는 세입이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하고, 공공구매력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커다란 환경적 및 사회적 혜택을 가져오도록 할 수 있다. 공공구매는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도시 재정 절약은 물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sustainable-local-economy-and-procurement.html](http://www.iclei.org/our-activities/our-agendas/sustainable-local-economy-and-procurement.html)

# 10. 도시-지역 간 지속가능한 협력

지역 (Regions and sub-national governments)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체들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과 계획, 구상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이들은 관할 경계 안에 위치한 도시 및 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성 달성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며,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그들이 가진 대표권을 사용한다.

도시-지역 간 협력 및 도시-농촌 간 상호작용은 각기 다른 차원의 지방정부들이 각자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여건을 조성한다.

대중교통, 지역과 광역 차원의 에너지 생산, 자원 흐름, 식량체계, 생산적인 도시-지역 (도시) 계획 등은 종종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된다. 다층적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정부들이 공통의 방향으로 각자의 책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이고 책임 있는 기제이다. 이러한 조정은, 정책 집행을 위한 수직적 통합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추구하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 우리의 비전

지방정부는 각자의 정책과 계획을 통해, 그리고 동시에 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 비전 구현을 위한 이클레이의 접근 전략

이클레이의 접근법은 다음 세 개의 핵심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 **광역 차원의 지속가능성 의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 협력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그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광역 차원의 제도적 여건:**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도시와 자치단체들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클레이는 정책, 프로그램, 재정적 장려책,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며, 하위 지방정부들에 실천을 요구하고 지원하며 도움을 주고 추적관찰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할 것을 상위 정부들에 권장한다.
- **기초-광역 협력:** 자치단체 간 협력과 조정을 지원하는 새 거버넌스 모델은 자연 자원, 사회적 및 경제적 자원의 생산, 보호 및 공평한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 분배, 물 이용, 식량, 교통, 재정 흐름, 대규모 사회 기반시설을 위한 구상 등은 공동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는 많은 우선과제들 중 몇 개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마음가짐이려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초-광역 간 협력 모델의 개발 및 확대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다.

## 2015-2021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 **광역 차원의 지속가능성 의제 개발을 추진한다.**
- 이클레이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광역지방정부를 위한 고유 **의제**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적 맥락에 맞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이들 또한 포함돼 있음을 알린다. 이러한 노력들은 광역지방정부들이 다층적 역량 강화 및 사업 지원 노력을 통해 시민들에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관할 구역 내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계 지점(주체)를 구축하고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클레이의 10대 전략적 의제를 광역지방정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네트워킹 기회, 기술적 지원 등이 다양한 층위의 지방정부들에 더 분명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맞닥뜨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법이 추구돼야 하며, 정책도구는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이다.
- 도, 시, 군, 자치구 등 다양한 층위의 지방정부, 관련 네트워크 등과 접촉하고, 이들 간에 상호 연계된 지역화된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광역지방정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와 자치단체**를 위한 일련의 서비스를 담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광역지방정부와 각각의 지방정부들이 함께 설계하고 개발할 것이다.
- 역량이 낮은 광역지방정부들과 더 나은 위치의 광역지방정부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도시 성장 및 발전이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부작용 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시-지역 간 협력을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출범할 것이다.
- 도시와 특히 거대 지역 간 관계 및 협력 개선을 촉진하는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이다. 이는 광역 차원의 지속가능성 및 호혜적인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 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며, 아울러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할 수 있도록 개도국을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 나아가, 국가기구 및 국제기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이들의 회원 가입을 추진할 것이다.
- 특히 국제 기후 및 생물다양성 협약, 수자원 보호,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에 대한 논의,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위한 준비작업 등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이클레이 **주창활동**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광역지방정부 대상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들을 **각국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R20 (기후행동지역)을 이 분야 이클레이 1차 파트너로 참여시킬 것이다.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이클레이

## 이클레이

이클레이는 지역실천활동을 통한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 대도시로 이루어진 비영리 협회입니다.

전 세계 17개 사무소에서 25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위기와 재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생산적 및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다양한 생물과의 공존을 추구하며, 녹색 경제와 똑똑한 기반시설을 갖춘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회원 도시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범위와 파급력은 전 지구적이며, 전 세계 도시 인구 20% 이상이 이클레이 활동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대단히 지역적인 실천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이클레이 활동 목표

도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적인, 그리고 동시에 전 지구적인 과제가 다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대)도시는 성장과 각종 활동, 혁신의 중심으로서, 환경적, 사회적 도전에 맞서는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히 요구되는 해법 이행을 위한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리더로서 지방정부는 지역 실천활동 추진을 위한 핵심 주체입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동시에 모든 차원의 정부가 벌이는 집합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클레이가, 집합적 학습과 교류, 그리고 역량 강화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 지방정부를 통해서 전 지구적 운동을 추동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0대 의제를 통해 우리는 회원 도시가 첫째, 지구의 한계를 존중하는 방식의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돌보는 지구에, 둘째, 사회적, 문화적 안녕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 셋째,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녹색 경제 창출을 통해 번영을 담보함으로써 그들이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 넷째,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기제를 이행하고, 도시-농촌 간 연속성을 존중하며, 수직적 통합을 추구하고, 정부 이해당사자로서 전 지구적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수립한 정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클레이 서비스

이클레이는 각종 총회, 네트워크, 연맹, 프로그램 등을 통해 네트워킹 및 타 지방정부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 전문가, 각종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지식을 한자리에 모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조직, 재정 및 사회 측면의 혁신적 해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역량 강화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및 표준을 실제적인 체제, 방법론 및 도구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협상들이 정부 이해당사자로서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참여시키며 권한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전 지구적 주창활동을 회원 정부를 대표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세계 지방정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클레이 활동 기반

이클레이는 열정적인 정치인, 훈련된 지방정부 공직자, 지역 활동가, 그리고 도시 안팎에서 일해 온 탄탄한 경험과 기술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와 실무자로 이루어진 전 지구적 회원 네트워크로서 이들 하나하나가 가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적이고 제도적인 경험은 이클레이 세계 네트워크 최대의 강점 중 하나이며, 이클레이 임무 달성을 위한 지역별, 주제별 지식 플랫폼, 정책,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사업을 창출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와 함께 함으로써 회원과 파트너 기관들은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이클레이가 그동안 축적해 온 지식에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